

FAO 세계 식량시장 동향과 전망

서 흥 석*

1. 서론

UN 식량농업기구(FAO)가 발간하는 식량 전망(Food Outlook)은 국제 농식품 시장의 단기 동향과 위험요인을 분석하는 반기별 보고서로, OECD와 FAO가 공동으로 연 1회 발간하는 중장기 농업전망 보고서인 OECD-FAO Agricultural Outlook¹⁾과 구분된다. OECD-FAO의 보고서는 향후 10년간 세계농업의 방향성을 전망하며, 정책 입안자와 연구자들이 중장기 농업정책, 투자 및 무역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에 반해 FAO의 식량 전망 보고서는 국제 농산물 시장의 단기적 동향과 위험요인을 신속히 파악해 정책 대응 및 식량안보 논의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보고서는 계량모형과 전문가 판단을 종합하여 국제 식량 시장의 현황과 향후 1년 이내의 단기 전망을 제시한다.

FAO 보고서에는 세계 농식품 시장의 전반적인 개관과 함께, 곡물, 유지종자, 설탕, 육류, 유제품, 어류 등의 품목별 생산·소비·재고·무역 전망이 포함된다. 또한 지역별 기여도 및 주요 생산국과 소비국의 동향에 대한 상세 분석도 수록된다. 작성 절차는 FAO 통계(FAOSTAT),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세계은행, IMF, OECD 등)의 통계를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한 후, 수급균형표(Supply and Demand Balance Sheet)를 활용해 품목별 생산·소비·재고량을 추정한다. 국제 가격 예측에는 부분균형모형과 계량경제모형을 적용하며, 추정 결과는 FAO 내부 전문가와 외부 협력기관의 검증을 거쳐 최종 전망치로 확정된다. 보고서

* 충북대학교 조교수(hongseok@cbnu.ac.kr).

본고는 UN-FAO가 2025년 6월 발간한 "Food Outlook : Biannual report on global food markets" 보고서 중 제1장(Markets at a glance)과 제2장(Market assessments)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작성됨.

1) 가장 최근 판인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25-2034(OECD/FAO, 2025)은 인구 구조 변화, 생산성, 기후, 정책 변화 등을 반영한 시나리오 기반의 세계 농식품 시장 수급 및 가격 예측을 제공함.

는 주요 품목에 대한 단기 전망과 함께, 지역별 및 주요 생산·소비국의 동향을 표와 그래프 중심으로 제시한다.

본 원고에서는 FAO가 발표한 전망 중 곡물(밀, 잡곡, 쌀)과 육류, 그리고 수입 의존도가 높고 식품 가공산업의 핵심 원료인 유지작물, 식물성 기름 및 박류, 설탕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정리한다. 이어 이러한 전망이 한국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전략을 제시한다.

2. 품목별 전망

2.1. 곡물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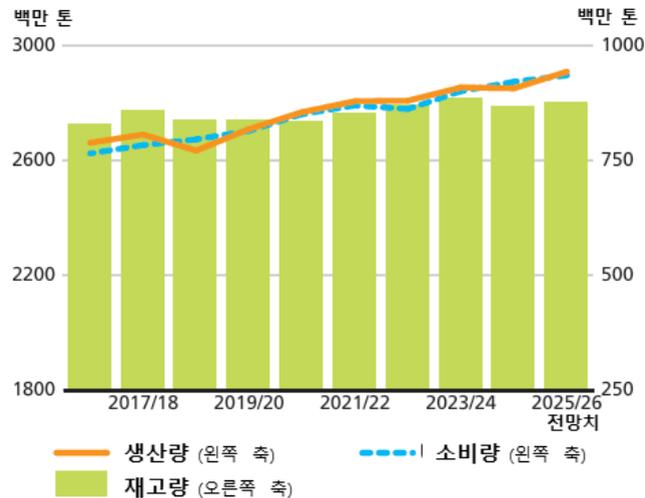
2025년 세계 곡물 생산량(정곡 기준, 쌀 포함)은 약 29억 1,100만 톤으로, 전년보다 2.1%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곡물 모두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옥수수 증가율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옥수수, 쌀, 수수는 모두 역대 최대 생산량을 경신할 전망이다. 2025/26년도 세계 곡물 소비량은 전년 대비 0.8% 증가한 28억 9,800만 톤으로 예측된다. 식용 소비는 0.9%, 사료용 소비는 0.5%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밀과 쌀을 중심으로 기타 용도 소비도 확대될 전망이다. 생산이 소비를 웃돌면서 세계 곡물 재고량은 전년 대비 1.0% 늘어난 8억 7,36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잡곡류 재고가 주된 증가 요인이며 쌀 재고도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밀 재고는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곡물의 재고율(재고량/소비량)은 전년과 유사한 29.8%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4/25년도에 약 7.0% 감소했던 세계 곡물 교역량은 2025/26년도에 1.9% 증가한 4억 8,710만 톤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밀 교역이 3.8% 늘어나며 회복을 주도하고, 잡곡류 교역도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쌀 교역은 0.7%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가격 측면에서는, 2025년 5월 FAO 곡물가격지수(2014-2016=100)가 109.0포인트로 전년 동월 대비 8.2% 하락하였다. 이는 2022년 5월 고점 대비 37.2% 낮은 수준이다. 하락

세는 주로 국제 쌀 가격이 22.6% 떨어진 데 기인했으며, 밀 가격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잡곡류 가격은 상승세를 보였다.

〈그림 1〉 세계 곡물류 수급 동향



자료: FAO(2025), p.1.

2.2. 밀

2.2.1. 2025년 세계 밀 생산 소폭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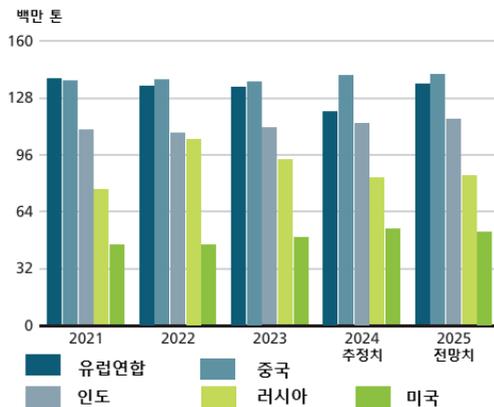
2025년 세계 밀 생산량은 전년 대비 1.0% 미만의 소폭 증가로 8억 1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증가세의 대부분은 유럽연합(EU)의 생산이 크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U의 2025년 밀 생산량은 1억 3,530만 톤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 대비 13.0% 증가한 수치로, 주로 기상 여건 호전에 따른 수확량 증가가 원인이다.

또한, 세계 3위 밀 생산국인 인도를 비롯한 주요 생산국들의 생산량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에서는 높은 가격 인센티브로 파종 면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1억 1,540만 톤이라는 역대 최대 생산량이 예상된다. 아르헨티나도 기상 여건 호전과 유리한 국내 가격 전망에 따른 경작지 확대와 파종 면적 증가로 전년 대비 11.0% 증가한 2,050만 톤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북아일랜드 포함)은 2024년의 과도한 강우와 비교해 기상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생산량이 최근 5년 평균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는 2025년 파종 면적 감소와 초기 기상 악화로 평균 이하의 생산량이 예상되었으나, 최근 몇 달간의 호전된 기상 덕분에 이러한 타격이 일부 상쇄되며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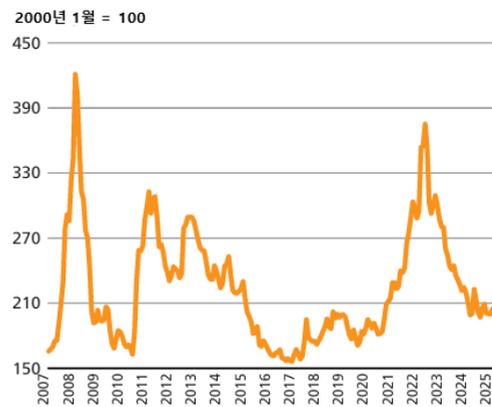
이러한 주요국의 생산 증가세는 다른 생산국들의 감소분을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감소는 호주, 카자흐스탄, 이란, 파키스탄, 우크라이나에서 예상된다. 호주는 2025년 파종 면적이 수익성 감소와 작부체계(윤작) 필요성으로 인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작황도 전년 대비 악화될 것으로 보여, 생산량은 3,050만 톤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란과 인근 중동 지역은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가뭄으로 인해 수확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5년 생산 전망 하향 조정의 주요 요인이다. 카자흐스탄은 2024년 대풍작 이후 기상 여건이 다소 불리해져 생산 전망이 다소 부진하다. 파키스탄에서는 강수량 부족과 가격 인센티브 약화로 파종 면적이 줄어들어 전년도의 역대 최대 생산량 대비 11.0% 감소가 예상된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밀 부문이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으며, 기상 악화가 더해져 2025년 생산 전망이 하락세다.

〈그림 2〉 IGC 밀 가격지수



자료: FAO(2025), p.12.

〈그림 3〉 주요국의 밀 생산량



자료: FAO(2025), p.10.

2.2.2. 수요 증가가 국제 밀 가격을 지지할 가능성

국제 밀 가격은 2024/25년 동안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였으나, 다소의 변동은 있었다. 2024/25년 수입 수요 감소로 인한 약세 심리는 러시아의 공급 긴축과 북반구 일부 주요

생산국의 작황 우려가 맞물리며 상방 압력을 받았다. 2025년 5월 국제 밀 가격은 2024년 5월 대비 10.5% 낮았고, 최근 5년 평균치보다 27.3% 낮았다.

2025/26년 초기 전망에 따르면 세계 밀 소비량이 증가하고, 수입 수요가 강세를 보이며, 특히 주요 수출국에서 재고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요인들은 현 시장의 약세 분위기 속에서도 2025/26년 밀 가격을 떠받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최근 몇 달간 시장 심리를 압박해온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이러한 가격 지지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

밀 선물 가격은 현재의 약세 심리를 반영하며 하락세를 보였다. 2025년 5월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9월물 연질 적동겨울밀(SRW: soft red winter wheat) 선물 평균 가격은 톤당 201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0.1% 낮았다.

2.2.3. 2025/26년 세계 밀 교역 부분적 회복 전망

2024/25년에 7.8% 감소했던 세계 밀 교역량은 2025/26년에 3.8%(730만 톤 증가) 늘어나 2억 6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는 2023/24년의 2억 960만 톤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예상되는 회복세는 주로 아시아 지역의 수입 수요 반등에 기인하며, 2024/25년 대비 16.4%(1,49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25/26년에는 중국과 튀르키예가 각각 사료용 밀 사용 확대(중국)와 수확량 감소(튀르키예)로 인해 밀 구매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등 여러 아시아 국가의 수입도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유럽 지역의 2025/26년 밀 수입량은 2024/25년 대비 35.2%(540만 톤)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소의 대부분은 유럽연합(EU)에서 발생하며, 이는 역대 생산이 크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영국 역시 수확량 개선이 수입 감소의 주된 요인이 될 전망이다.

아프리카와 중남미·카리브해 지역의 밀 수입 수요도 2025/26년에 2024/25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에서는 앙골라와 주요 밀 수입국인 이집트에서 수입 감소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중남미·카리브해 지역에서는 브라질의 수입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나, 브라질은 이 지역 최대 밀 수입국 지위를 내려놓고 멕시코와 공동 1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 증가 전망은 주로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인 러시아와 유럽연합의 판매 회복을 반영한다. 2024/25년에 유럽연합은 국내 공급 부족으로 수출이 제한되었으나, 생산 회복이 2025/26년 수출 확대를 뒷받침할 전망이다. 러시아는 생산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세계 최대 밀 수출국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아르헨티나도 수확량 증가에 힘입어 2025/26년 수출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밀 수출국 중 호주, 캐나다, 우크라이나의 2025/26년 수출량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카자흐스탄과 미국은 2024/25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2.4 2025/26년 세계 밀 소비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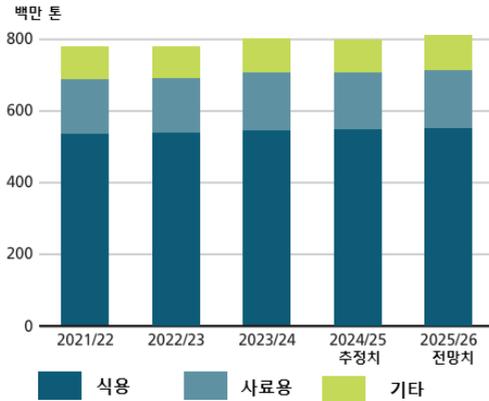
2025/26년 세계 밀 소비량은 전년 대비 1.3%(1,000만 톤) 증가해 8억 54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사료용 밀 소비는 2.3%(360만 톤)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증가분의 대부분은 중국에 집중될 전망이다. 식용 밀 소비는 0.7%(390만 톤) 늘어, 1인당 세계 밀 소비량은 연간 66.6kg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산업용, 종자용, 수확 후 손실 등을 포함한 기타 용도는 2.7%(250만 톤) 증가할 전망이며, 이는 주로 미국의 소비 증가가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2.2.5. 2025/26년 세계 밀 재고 감소 전망

2025/26년 세계 밀 재고는 전년 대비 2.2%(680만 톤) 감소해 3억 1,000만 톤으로, 2021/22년 이후 최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감소는 러시아의 재고가 약 24.0% 급감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며, 이 외에도 아르헨티나, 호주, 유럽연합, 인도네시아, 이란, 멕시코,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등에서 재고가 적지 않게 줄어들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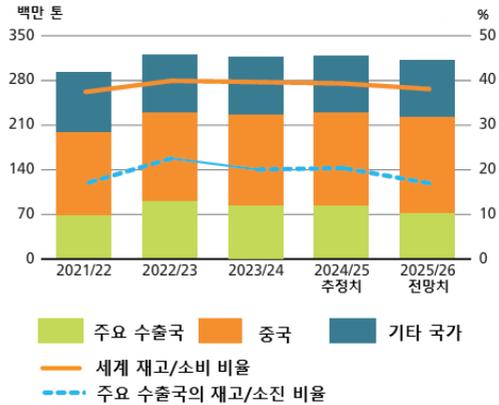
현재 예측에 따르면, 2025/26년 세계 밀 재고율(소비 대비 재고 비율)은 38.1%로, 2024/25년의 39.3%에서 낮아지고 최근 5년 평균치인 38.7%에도 못 미치지만, 여전히 매우 안정적인 공급 수준을 나타낸다. 다만, 주요 밀 수출국의 기말재고 대비 소진율은 세계 공급 가능량을 더 잘 보여주는 지표로 간주되며, 이는 2024/25년 20.4%에서 2025/26년 17.0%로 하락할 전망이다. 특히 아르헨티나, 유럽연합, 러시아에서의 재고 감소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세계 용도별 밀 소비량



자료: FAO(2025), p.13.

〈그림 5〉 세계 밀 재고량 및 재고율



자료: FAO(2025), p.14.

2.3. 잡곡

2.3.1. 국제 잡곡 가격, 평균 이상 수준 유지 전망

2024/25년 잡곡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국제 잡곡 가격은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2025년 5월 세계 잡곡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5.0% 높았으나, 최근 5년 평균에 비해서는 여전히 16.0% 낮은 수준이었다.

주요 잡곡 가운데 옥수수 가격은 2024/25년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는 주요 수출국의 생산과 재고가 줄어든 영향으로, 2025년 5월 기준 전년 대비 8.4% 상승했으나 여전히 평균보다 13.2% 낮은 수준이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거래된 2025년 12월 인도분 옥수수 선물(미국 신곡 기준)은 2025년 5월 톤당 163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0% 하락했다.

2.3.2. 2025년 세계 잡곡 생산, 사상 최고치 전망

2025/26년 세계 잡곡 생산량은 15억 6,000만 톤으로 전망되며, 전년 대비 3.4%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증가분의 대부분은 옥수수 생산 증가에서 비롯되었으며, 보리와 수수의 성장세는 비교적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2025년에 12억 5,800만 톤으로 예상되며, 전년 대비 3.8% 증가

할 전망이다. 미국은 4억 180만 톤을 생산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24년 대비 6.0% 증가한 수치로 세계 생산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호전된 전망은 옥수수 가격 강세와 수익성 개선에 따른 파종 면적 5.0% 확대가 주요 요인이다. 브라질도 유리한 가격 여건에 따른 옥수수 재배 면적 확대와 양호한 기상으로 2분기에 수확될 주요 사프리카(safrinha) 작물의 수확량 전망이 개선되면서 2025년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 대비 8.0% 증가한 1억 2,47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EU)은 2024년 가뭄으로 감소했던 수확량이 반등하면서 옥수수 생산이 회복될 전망이다. 다만, 6월~9월 동안 역내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 이하 강수량이 예상되어 하방 리스크가 존재한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농업 부문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2024년 기상 악화로 감소했던 수확량이 2025년에는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남부 아프리카에서는 2025년 기상 호전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잠비아, 짐바브웨의 생산이 2024년 가뭄 이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주요 생산국 중 유일하게 뚜렷한 감소가 예상되는 국가는 아르헨티나로, 매미충이 전파하는 옥수수왜화병(maize stunt disease) 확산 우려로 파종 면적이 줄어들면서, 2025년 생산량이 전년 대비 9.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보리 생산량은 2025년에 1억 4,530만 톤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EU와 러시아의 생산 확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호주·이란·카자흐스탄은 수확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수수 생산량은 미국의 대규모 생산 확대 기대에 힘입어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 세계 수수 생산량은 6,360만 톤으로 전망된다.

2.3.3. 2025/26년 세계 곡물(조곡) 교역 소폭 반등 전망

2024/25년(전년 대비 8.1% 감소) 크게 위축되었던 세계 조곡 교역은 2025/26년(7월~다음해 6월)에 전년 대비 0.9% 증가하며 소폭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복은 보리와 수수 교역의 강한 성장에 힘입은 것이며, 옥수수 교역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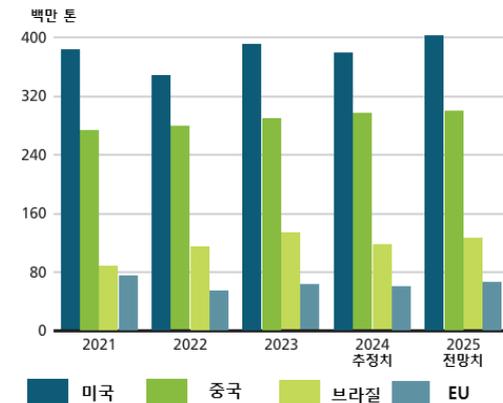
2025/26년 세계 보리(맥아 제외) 교역량은 약 3,1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중국과 튀르키예의 보리 수입 수요 증가와 함께 EU와 러시아의 수출 증가에 따른 것이다.

세계 수수 교역량은 중국의 강한 수입 수요에 힘입어 전년 대비 15.3% 증가한 89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측면에서는 미국의 수수 판매 확대가 주요 증가 요인으로 예상된다.

반면 2025/26년 세계 옥수수 교역량은 보리와 수수와 달리 전년 대비 0.3% 감소한 1억 8,250만 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 측면에서는 유럽의 구매 감소가 주된 원인이다. EU의 옥수수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세계 2위의 옥수수 수입국 지위는 유지할 전망이다. 아프리카도 이집트, 잠비아, 짐바브웨의 수입 감소로 전반적인 감소세가 예상된다. 중남미·카리브해 지역에서는 멕시코가 2024/25년에 크게 늘렸던 수입량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여전히 세계 최대 옥수수 수입국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량은 2,200만 톤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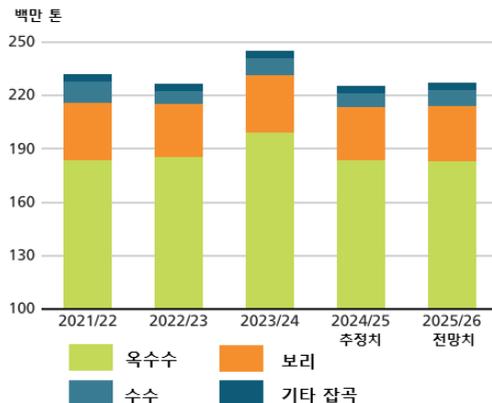
아시아는 세계 최대 옥수수 수입 지역으로, 2025/26년에 유일하게 수입 수요가 증가(6.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주로 중국과 그보다 작은 규모의 이란 수입 증가에 따른 것이다. 옥수수 수출 측면에서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크라이나의 수출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국은 역대 최대 규모의 옥수수 수출이 예상되면서 수출을 늘려 이러한 감소분을 일부 상쇄할 전망이다.

〈그림 6〉 주요국의 옥수수 생산량



자료: FAO(2025), p.16.

〈그림 7〉 품목별 세계 잡곡 교역량



자료: FAO(2025), p.17.

2.3.4. 2025/26년 세계 잡곡(조곡) 총소비량 소폭 증가 전망

2025/26년 세계 잡곡 소비량은 전년보다 소폭(0.2%, 360만 톤) 증가하여 15억 4,4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잡곡 가운데 옥수수 소비량만 증가(0.4%, 530만 톤)할 것으로 보이며, 보리와 수수는 각각 0.8%(110만 톤), 0.5%(5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사료용 잡곡 소비량은 전년보다 0.2%(190만 톤) 증가한 9억 77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옥수수 사료용 소비량은 0.5%(360만 톤) 증가하여 7억 4,37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로 미국에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도 풍부한 국내 공급량을 바탕으로 옥수수 사료용 소비가 증가할 전망이다. 옥수수와 수수 사료용 주요 소비국인 중국은 옥수수 사료용 소비는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수수 사료용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수수 사료용 소비량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소폭 증가와 함께 전년 대비 4.0%(100만 톤) 증가한 2,59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5/26년 세계 잡곡 식용 소비량은 2억 3,260만 톤(0.5%, 120만 톤 증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옥수수(0.6% 증가)와 보리(3.5% 증가) 소비량 증가는 수수 소비량의 감소(2.5% 감소)를 상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잡곡의 식용 소비는 모든 지역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아시아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가 나타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2025/26년도 잡곡의 산업용 소비량은 전년 대비 0.1%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옥수수(0.2% 증가)와 보리(1.7% 증가)의 산업용 소비가 증가하면서 수수의 산업용 9.2% 감소분을 상쇄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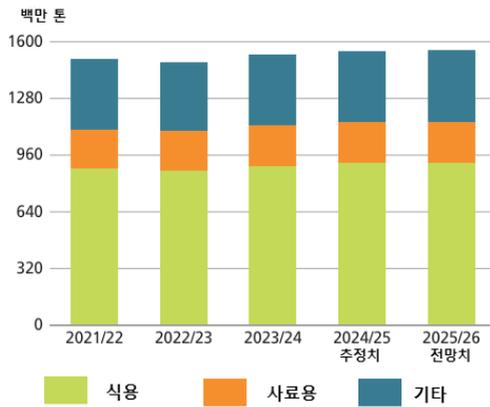
2.3.5. 2025/26년 세계 잡곡 재고, 옥수수 재고 증가로 부분 회복 전망

2024/25년에 감소했던 세계 잡곡 재고량은 2025/26년에 회복세로 돌아서, 기초 재고량 대비 4.1% 증가해 2026년 말에는 3억 5,42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세계 잡곡 재고율은 2024/25년 22.0%에서 2025/26년 22.6%로 소폭 상승하여 공급 수준이 충분함을 보여준다. 또한, 주요 수출국의 기말재고를 ‘국내 이용량 + 수출량’인 소진량으로 나눈 비율(교역 관점의 가용성 지표)도 2024/25년 10.1%에서 2025/26년 12.0%로 상승할 전망이다.

예상되는 잡곡 재고량 증가는 주로 옥수수 재고량의 4.6% 증가에서 비롯된다. 특히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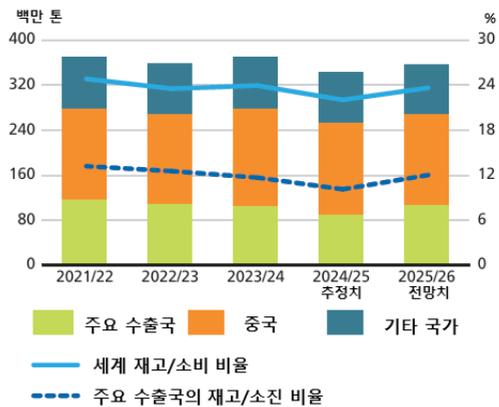
국은 역대 최대 생산 전망에 힘입어 기초 재고량 대비 27.2% 증가가 예상되며, 브라질, EU, 우크라이나에서도 옥수수 재고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잡곡 가운데 보리 재고량은 중국과 EU에서 증가해 전년 대비 2.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수수 재고량은 중국, EU, 미국, 그리고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 줄어들면서 전년 대비 10.8% 감소할 전망이다.

〈그림 8〉 세계 잡곡 용도별 소비량



자료: FAO(2025), p.16.

〈그림 9〉 세계 잡곡 재고량 및 재고율



자료: FAO(2025), p.17.

2.4. 쌀

2.4.1. 국제 쌀 가격, 3년 내 최저치 근접

국제 쌀 가격은 2024년 9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꾸준히 하락했다. 이는 주요 수출국의 풍부한 수확량과 더불어 2022~2023년에 인도가 도입했던 다양한 쌀 수출 제한이 해제된 시기와 맞물렸기 때문이다. 인도의 수출 제한 해제는 인도산 쌀 수출의 급격한 회복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수출국 간 경쟁이 심화되었다.

2025년 초부터는 주요 쌀 수입국의 수요 둔화가 국제 쌀 가격을 추가로 압박했다. 특히, 2023~2024년에 세계 2위 쌀 수입국으로 부상했던 인도네시아는 자국 수확 호조로 정부 수입을 중단하고 국내 조달을 선호하면서 수입량이 급감했다. 4월 이후에는 향미(香米) 품종 수요 회복, 환율 변동, 계절적 하방 압력 완화 등이 국제 쌀 가격에 일부 지지 요인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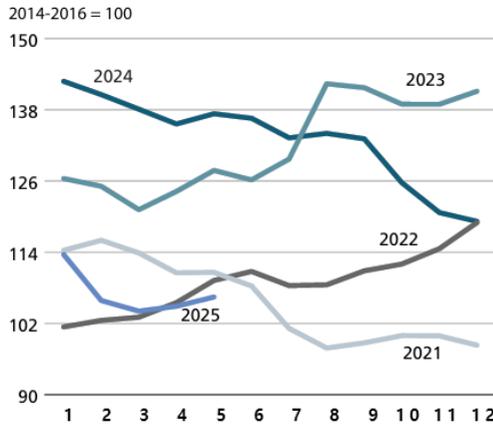
작용했으나, 가격은 여전히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FAO 쌀 가격지수(All Rice Price Index)에 따르면 2025년 5월 국제 쌀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2.6% 하락하여 최근 3년 내 최저 수준에 근접했다.

2.4.2. 세계 생산, 추가 확대 전망

FAO는 2025/26년도(정곡 기준) 세계 쌀 생산량을 5억 5,150만 톤으로 잠정 전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0.9% 증가한 수치다. 역대 최고치이지만, 향후 생산 증가 속도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생산 둔화 전망은 주로 아시아를 반영한다. 2024/25년 대규모 수확과 판매 어려움으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는 쌀 재배의 수익성이 낮아졌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파키스탄, 한국, 태국의 재배면적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이란, 튀르키예는 관개용수 부족으로 재배 축소가 예상된다. 다만, 올해 쌀 생산량은 북반구 여름철 기상 여건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기상 전망은 대체로 긍정적이며,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 이상의 강우가 예상된다. 또한, 이미 파종을 마친 지역에서는 작황도 대체로 양호하다.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양호한 기상 조건과 매력적인 가격의 혜택을 보고 있다. 중국, 인도, 일본, 필리핀의 생산 증가와 맞물려 아시아 전체 생산량은 0.7% 늘어난 4억 9,270만 톤이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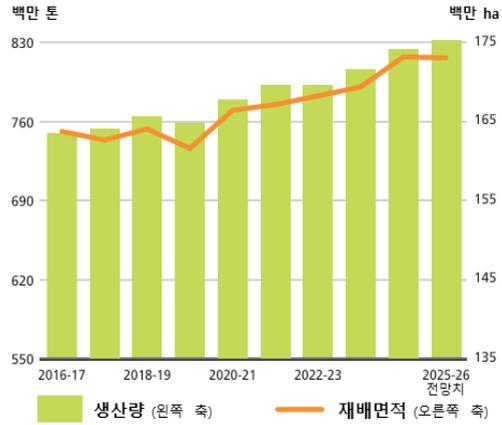
아프리카는 특이한 기상이변이 없다면 2024/25년에도 풍작을 이어가 2,850만 톤 생산이 가능하며, 높은 현지 가격과 정부 자급 프로그램이 재배 확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나이지리아는 높은 투입재 가격과 수입 경쟁, 마다가스카르는 강수 부족으로 생산 감소가 우려된다.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는 2025/26년 생산량이 전년 대비 9.1% 증가한 2,050만 톤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아르헨티나 등 주요국의 대풍과 멕시코·니카라과의 생산 증가에 기인한다. 기타 지역 중 EU는 재배 여건 개선과 일본형 쌀 가격 강제로 생산 증가가 예상되며, 미국과 호주는 수익성 저하와 자원 제약으로 생산 감소가 전망된다.

〈그림 10〉 FAO 쌀 가격지수



자료: FAO(2025), p.21.

〈그림 11〉 세계 쌀 생산량 및 재배면적



자료: FAO(2025), p.22.

2.4.3. 2025년 세계 교역 또다시 확대 전망, 아시아 수입 감소가 성장 제한

2025년(1~12월) 세계 쌀 교역량은 전년 대비 1.4% 증가해 역대 최고치인 6,05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가 세계 수입 증가세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조한 현지 수확량과 여전히 높은 소매가격으로 인해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마다가스카르, 나이지리아, 세네갈의 쌀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중남미·카리브해, 북미, 오세아니아도 국제 가격 하락에 힘입어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아시아 수입은 2024년 역대 최고치 대비 8.5% 감소한 2,630만 톤에 그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는 생산량 회복과 자급 목표 강화로 인해 수입을 전년 대비 370만 톤 줄인 95만 톤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필리핀과 베트남의 수입 감소도 더해져, 중국, 네팔, 아랍에미리트, 방글라데시의 수입 증가분을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국 중에서는 인도가 연속 풍작과 수출 제한 해제 효과로 전통적인 아프리카와 중동 시장에서의 강한 수요를 기반으로 수출을 30% 늘려 역대 최고치인 2,33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도 다년간 최저치에서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캄보디아, 미얀마, 파키스탄, 태국, 베트남은 인도와의 경쟁 심화, 동남아 시장의 수요 감소로 수출이 감소할 전망이다. 호주, 중국, 미국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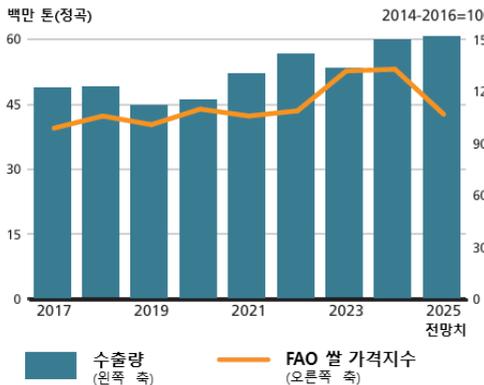
2.4.4. 세계 쌀 소비, 또 한 번의 견조한 증가세

2025/26년도 세계 쌀 소비량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역대 최고치 5억 4,910만 톤으로 예상된다. 이는 주로 식용과 비식용(산업용)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다. 인구 증가와 대부분 지역에서의 쌀 수요 확대에 힘입어 식용 소비량은 1.3% 늘어난 4억 3,980만 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식용(산업용) 수요는 전년 대비 8.8% 증가한 2,38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인도 정부가 대규모 비축과 풍작을 기반으로 에탄올 생산에 쌀을 계속 투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4.5. 세계 재고량, 증가세 지속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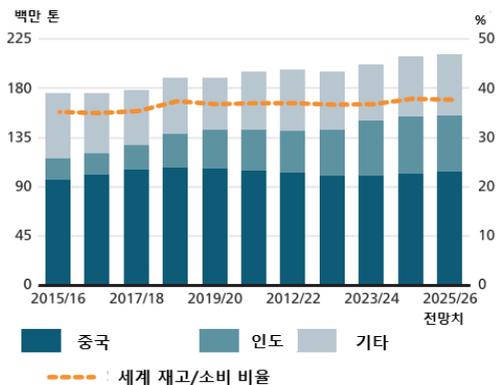
2025/26년 세계 쌀 기말재고는 2억 950만 톤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전체 비축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과 인도는 상반된 흐름을 보이며, 인도는 공공 창고 여유 확보를 위해 비축량을 5,050만 톤으로 줄이고, 중국은 풍작과 내수 부진으로 1억 3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국가 합산 비축량은 6,000만 톤으로 증가하며, 브라질,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의 확대로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의 감소분을 상쇄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계 재고율은 37.7%로 견조하게 유지되며, 주요 수출국의 재고/소비 비율은 전년 대비 1%p 하락한 29.7%로 예상된다.

〈그림 12〉 세계 쌀 교역 및 FAO 쌀 가격지수



자료: FAO(2025), p.23.

〈그림 13〉 세계 기말재고 및 재고/소비 비율



자료: FAO(2025), p.24.

2.5. 유지작물, 식물성 기름 및 박류²⁾

2.5.1. 유지작물과 파생제품의 국제 가격은 2024/25년에 서로 다른 흐름

2024년 중반부터 유지작물, 박류, 식물성 기름의 가격 흐름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고, 이러한 경향은 2024/25년에도 이어졌다. 2025년 5월 기준 FAO 유지작물 가격지수와 박류 가격지수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4.6%, 22.2% 하락한 반면, 식물성 기름 지수는 19.1% 상승하며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유지작물 가격 하락은 대두 국제가격의 약세가 주요 요인이다. 남미 일부 지역의 기상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공급이 충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두 가격은 수년 만에 저가권에 머물렀다. 여기에 2025년 초 재점화된 미·중 무역 긴장이 세계 최대 대두 수입국인 중국의 수요를 위축시킨 것도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유채와 해바라기씨 가격은 주요 생산국의 감산과 흑해 지역의 생산 감소로 상승세를 보였으며, 특히 해바라기씨는 2025년 초 수년 만의 고점을 기록했다.

박류 가격지수 하락은 대두박 가격 약세에서 비롯되었다. 2024/25년 세계 대두 생산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분쇄국에서의 식물성 기름 수요 증가로 가공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대두박 수출 여력도 크게 늘어났다.

반면, 식물성 기름 지수는 시즌 내내 강세를 유지했다. 팜유 가격이 유채유, 대두유, 해바라기유 가격까지 끌어올린 것이 주요 배경이다. 2024년 4분기 이후 팜유는 동남아 주요 산지의 건조한 날씨와 기름야자 노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로 타 유종 대비 이례적인 프리미엄을 유지했다. 유채유와 해바라기유 가격도 생육 조건 악화로 감산이 이어지며 상승했고, 대두유는 공급이 넉넉함에도 다른 식물성 기름의 공급 제약과 꾸준한 수입 수요에 힘입어 가격이 동반 상승했다.

2) 세계에서 수확된 유지작물은 대부분 분쇄·압착 과정을 거쳐 식용 및 산업용 기름(유지·지방)과 사료 원료인 박·케이크로 전환됨. 이에 따라 시장 분석은 종자 자체보다는 유지와 박 기준으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임. 생산 통계는 해당 연도의 국내 유지작물 생산량을 기름과 박으로 환산해 산출되며, 이는 실제 분쇄 실적을 직접 반영한 수치는 아님. 또한, 유지작물이 한 국가에서 생산되어 다른 국가에서 분쇄되는 경우, 그 물량은 분쇄국의 유지·박 소비 통계에 포함됨. 교역 및 재고 통계도 환산 개념을 포함함. 유지 교역량은 실제 기름 교역량에 더해, 거래된 유지작물을 기름으로 환산한 양(oil equivalent)을 합산해 집계함. 재고 역시 실제 기름 재고에 유지작물의 기름 환산량을 더한 값으로 산정됨. 박 교역·재고 통계도 같은 방식으로, 유지작물의 박 환산량(meal equivalent)을 포함해 계산됨. 이때 환산량은 종자 내 기름 또는 단백질 함량을 기준으로 한 계산값임.

2.5.2. 2024/25년 세계 유지작물 생산, 3년 연속 확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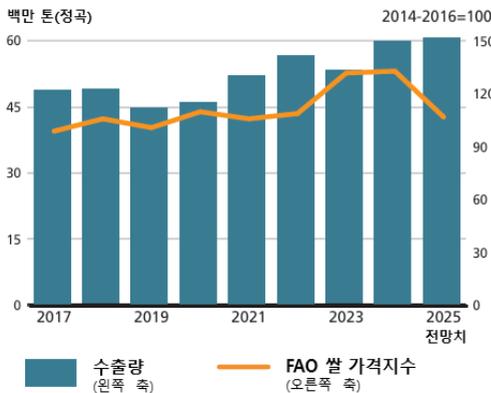
2024/25년 세계 유지작물 생산량은 6억 9,590만 톤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이는 대두, 팥콩, 면실 생산 증가가 유채와 해바라기씨 수확 감소를 충분히 상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세계 대두 생산량은 전년 대비 6.1% 증가한 4억 2,250만 톤으로, 3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은 재배 면적 확대와 양호한 기상 여건으로 최대 수확이 기대되며, 미국은 전년 감소세에서 반등했다. 인도는 양호한 몬순 덕분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중국은 안정적인 생산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지속된 가뭄으로 생산이 정체되고, 파라과이는 감소가 전망된다.

유채 생산은 전 세계적으로 5.4% 감소했으며, EU의 생산 부진과 캐나다의 고온·건조 피해가 주요 원인이다. 반면 호주는 양호한 작황으로, 중국과 인도는 재배 확대와 안정적 수확으로 최대 또는 근접한 생산량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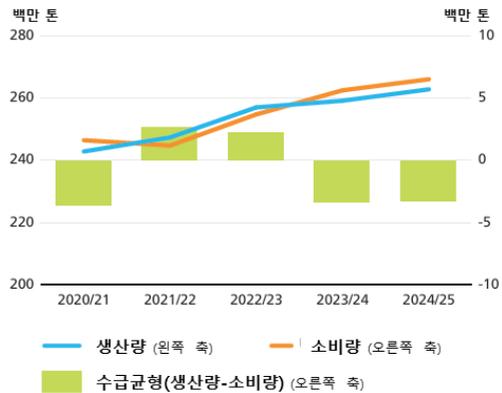
해바라기씨 생산은 흑해 지역 가뭄과 EU 수확 감소로 4년 만에 최저 수준이 예상된다. 다만 아르헨티나는 양호한 생육 여건으로 사상 최대에 가까운 생산량이 전망된다.

〈그림 14〉 FAO 월간 국제 가격지수: 유지작물, 식물성 기름, 박류(2014~2016=100)



자료: FAO(2025), p.25.

〈그림 15〉 세계 유지/지방 생산량 및 소비량



자료: FAO(2025), p.27.

2.5.3. 완만한 증산에서도 세계 유지·지방 시장은 타이트한 상태 유지 전망

앞서 제시한 유지작물 생산 전망에 더해 팜유 생산의 완만한 회복이 예상되면서, 2024/25년 세계 유지·지방(oils/fats) 생산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2억 6,320만 톤으로 소폭 확대될 전망이다. 대두유·땅콩유 생산의 지속적 증가와 팜유·올리브유의 회복이 유채유·해바라기유·코프라유(코코넛유)의 뚜렷한 감소를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의 팜유 생산은 2023/24년 생육 악화로 줄었으나, 2024/25년에는 부분 회복이 예상된다. 다만 재식갱신 지연과 재배면적 제약, 기름야자의 노령화로 회복세는 제한적일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일부 지역의 과도한 강우와 기후 영향으로 소폭 감소가 예상된다. 반면 대두유는 사상 최대 대두 수확과 주요 분쇄국의 양호한 수익성에 힘입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유채유와 해바라기유는 원료 부족으로 생산 감소가 전망된다.

소비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1.3%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팜유, 대두유, 땅콩유, 올리브유 소비는 증가하지만, 유채유와 해바라기유는 감소해 전체 소비 증가 폭은 제한될 전망이다. 식품용 수요는 중국·인도 등 아시아 지역이 견인하고, 바이오연료용 수요는 정책 조정 영향으로 제한적인 증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재정지원 불확실성으로 바이오디젤 생산이 줄고, 인도네시아는 혼합 의무 상향 계획이 지연됐으며, 브라질도 혼합비율 상향을 보류한 상태다.

세계 유지·지방 교역량은 전년 대비 0.5% 감소한 1억 3,800만 톤으로, 2년 연속 감소가 예상된다.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의 팜유 공급 감소, 캐나다의 유채유, 러시아·우크라이나의 해바라기유 수출 축소가 주요 원인이다. 반면 아르헨티나·브라질·미국은 대두유 수출을 확대할 전망이다. 수입 측면에서는 인도가 초반 재고 보충을 위해 수입을 늘리는 반면, 중국·미국·EU는 국내 공급 여건 개선과 소비 둔화로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다만 관세와 쿼터 등 무역 정책 변화에 따라 변동 여지는 있다.

2024/25년에는 소비가 생산을 초과해 세계 기말 재고는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팜유·유채유·해바라기유 주요 수출국(캐나다, 말레이시아, 러시아)과 수입국(중국, EU, 인도)에서 재고 방출이 예상되며,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대두유 공급 확대로 재고를 더 쌓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재고/소비 비율은 12.5%로 하락하고, 주요 수출국의 재고/소비 비율도 낮아질 전망이다.

2.5.4. 풍부한 박류 공급, 2024/25년에 재고 추가 축적 견인

2024/25년 세계 박류(meals/cakes) 생산량은 전년 대비 4.1% 증가한 1억 8,100만 톤(단백질 환산 기준)으로 전망된다. 이는 유지작물 공급 확대와 주요 분쇄국의 식물성 기름 수요에 힘입은 견조한 분쇄·가공 덕분이다. 대두·땅콩·면실 박의 생산 증가가 유채·해바라기씨 박의 감소분을 충분히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박류 소비량도 증가세를 이어가 전년 대비 3.9% 증가한 1억 7,590만 톤의 사상 최고치가 예상된다. 증가 가속의 주된 배경은 이집트·유럽연합(EU)·태국·미국·베트남의 대두박 사용 확대로, 풍부한 공급과 비용 하락이 뒷받침한다. 중국도 단백질 박 수요가 늘겠지만, 돼지 사육마릿수 정체와 축산업 수익성 둔화로 증가 폭은 제한될 전망이다.

국제 교역량(거래된 유지작물에 포함된 박 환산량 포함)은 2024/25년에 완만히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주로 대두박의 선적 증가에 기인한다. 반면 유채박·해바라기박 교역량은 전년보다 감소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브라질·미국은 공급을 늘려 수출 확대가 전망되는 반면, 인도·러시아·우크라이나는 수출 가능 물량 감소로 선적이 줄 가능성이 있다. 수입 측면에서는 EU와 동남아 여러 국가의 구매 증가가 중국의 감소를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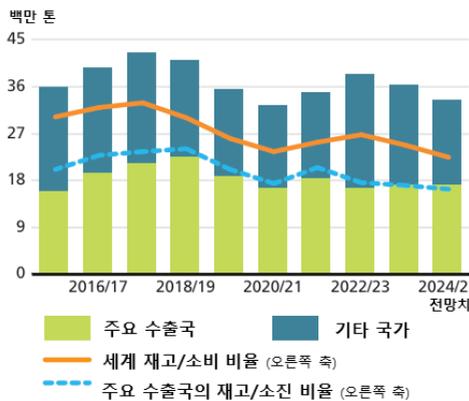
재고량은 생산이 소비를 상회하면서 3년 연속 증가가 예상된다. 브라질과 미국은 국내 생산 증가에 따라 대두박 재고가 누적될 전망이고, 중국도 재고가 더 쌓일 수 있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대두박 수출 급증으로 재고가 감소하고, 캐나다·러시아·우크라이나는 유지작물 생산 감소로 재고가 줄 수 있다. 이 결과 세계 박류 재고/소비 비율은 20.6%로 추가 상승하고, 주요 수출국(아르헨티나·브라질·캐나다·인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파라과이·러시아·우크라이나·미국·우루과이)의 재고/소비 비율도 수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2.5.5. 2025/26년 초기 생산 전망

2025년 6월 초 기준, 북반구의 일부 국가에서만 파종이 진행 중이어서 2025/26년 작황 정보는 제한적이다. 남반구는 2025년 4분기부터 파종이 시작될 예정이다. 대두·유채·해바라기씨·면실의 생산 증가는 땅콩 생산 감소를 상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대두 생산량은 지속 확대되어 2025/26년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브라질은 재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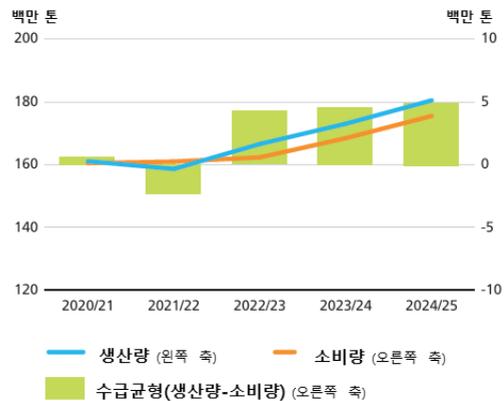
면적 확대에 힘입어 생산량이 늘어 파종 축소가 예상되는 미국의 감소분을 보완할 전망이다. 세계 해바라기씨 생산량은 EU·러시아·우크라이나의 생산 증가로 전년 대비 반등할 것으로 보이나, 아르헨티나의 감소가 일부 상쇄할 수 있다. 세계 유채 생산량도 호주·캐나다·중국·EU의 생산 확대가 우크라이나의 감소를 보완하며 회복세가 예상된다. 이러한 예비 전망은 2025/26년 박류 공급의 지속적 증가를 시사한다. 식물성 기름도 유지작물 생산 증가에 맞춰 생산량이 증가하겠지만, 팜유 재배면적과 수확량의 개선이 제한적이어서 전년 보다 증가 속도는 느릴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러한 초기 전망은 주요 산지의 기상 여건, 각국의 바이오연료 정책 변화, 글로벌 무역 갈등 등 통상적 불확실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림 16〉 세계 유지/지방 재고량 및 재고율



자료: FAO(2025), p.28.

〈그림 17〉 세계 유지/지방 생산량 및 소비량



자료: FAO(2025), p.29.

2.6. 설탕

2.6.1.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국제 설탕 가격을 압박

2024년 11월자 Food Outlook 발간 이후, 국제설탕협정(ISA)의 원당 일간 가격으로 측정한 국제 설탕 가격은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2024년 말에는 브라질 남부 주요 산지의 강우 회복이 가격을 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인도와 태국의 제당(분쇄) 시즌 시작도 하락 압력을 더했다. 같은 해 4분기 브라질 헤알화의 미 달러 대비 약세는 브라질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 가격 하락에 추가로 기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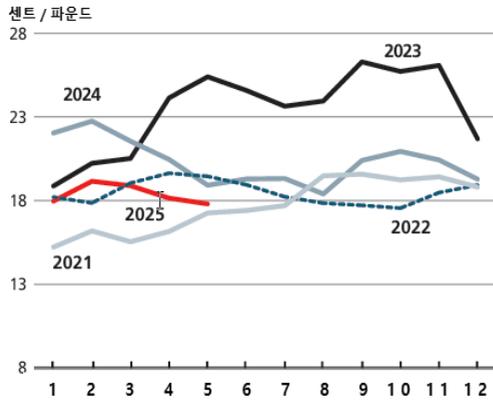
다만 2025년 2월에는 브라질과 인도의 생산 전망 악화 우려로 가격이 일시 급등했으나, 이후 다시 하락세로 전환해 2025년 5월 파운드당 17.7센트(톤당 390달러)까지 떨어졌다. 이는 2022년 10월(톤당 386.8달러) 이후 최저 수준이다. 하락의 주된 배경은 글로벌 경기 전망의 불확실성 확대에 의한 수요 약화, 특히 음료·식품 가공업의 수요 둔화 우려였다. 여기에 2025년 2월 이후 국제 유가 하락으로 브라질에서 설탕 생산의 수익성이 에탄올 대비 높아지면서(설탕 쪽으로 생산 유인 확대) 추가 하방 압력이 가해졌다. 현 시점 공급 부족 전망에도 불구하고, 2025/26년의 글로벌 공급과잉(흑자) 가능성과 2025년 세계 경제 활동의 기대 이하 흐름은 향후 몇 달간 설탕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2.6.2. 2024/25년 세계 설탕 생산 전망 하향

2024/25년(10월~다음 해 9월) 세계 설탕 생산은 1억 7,560만 톤으로, 전년보다 710만 톤(-3.9%)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2024년 11월호 Food Outlook에 제시된 FAO의 초기 예상치보다 낮은데, 인도의 생산 부진이 주된 원인이다. 아시아의 2024/25년 생산은 3년 연속 감소가 예상된다. 인도·파키스탄·튀르키예의 감소가 중국·태국의 증가를 상쇄하고도 남는다. 인도는 가뭄 장기화로 작황이 악화되어 전년 대비 560만 톤 감소가 전망되며, 이에 따라 생산 전망이 연속 하향 조정되었다. 파키스탄과 튀르키예도 평년보다 덥고 건조한 기상으로 생산이 줄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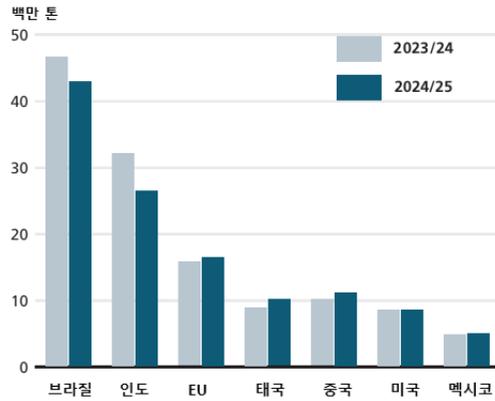
전년 풍작의 기저효과로 브라질 생산량이 7.9% 감소하면서, 남미 전체 생산량도 줄어들 전망이다. 2024년 말 강우가 다소 개선되었지만, 그 이전의 건조와 2025년 초 평균 이하 강수로 사탕수수 수확량이 악화되어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이는 설탕의 수익성이 에탄올보다 높음에도 나타나는 감소다. 멕시코는 기상 호전으로 수량과 당회수율이 개선되며 전년의 저조한 수준에서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는 이집트·케냐·모로코의 생산 증가로 대륙 전체 생산이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이집트(아프리카 최대 생산국)는 사탕무 생산 확대가 증가를 이끌며, 사탕수수 생산은 정책 기조에 맞춰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EU는 수익성 개선에 따른 사탕무 파종 면적 확대에 2024/25년 생산이 전년 대비 5.1%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타 지역 중에서는 미국은 사탕무 생산 증가가 사탕수수 감소를 상쇄해 소폭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호주는 사탕수수 생산 감소와 당회수율 하락으로 감소가 전망된다.

〈그림 18〉 국제 설탕 가격



자료: FAO(2025), p.31.

〈그림 19〉 주요 생산국의 설탕 생산량



자료: FAO(2025), p.32.

2.6.3. 2024/25년 설탕 소비 증가세 둔화

2024/25년 세계 설탕 소비는 1억 7,780만 톤으로, 전년 대비 170만 톤(1.0%)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2024년 11월호 Food Outlook의 초기 전망치와 전년도의 1.2% 증가율에 비해 낮다. 2025년 글로벌 경기 둔화가 예상되면서, 세계 설탕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음료·식품 가공 부문의 수요가 제약될 가능성이 반영된 결과다. 다만 소비가 완만히 늘더라도 생산 전망 하향으로 2024/25년에는 220만 톤의 생산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연간 소비 증가는 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견인될 전망이다.

아프리카는 상대적으로 높은 인구 증가율에 힘입어 세계 평균을 웃도는 소비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이집트(대륙 최대 소비국)는 견조한 경제 성장과 제과·가공식품 산업 확대에 2% 이상 증가가 전망된다. 아시아 소비는 경제 성장 둔화를 반영해 2023/24년보다 완만한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인도(세계 최대 소비국)는 0.7% 증가로 전년보다 낮고, 2019/20년 팬데믹 침체 이후 가장 느린 확대 속도가 예상된다. 중국(2위 소비국)도 2025년 성장 전망 하향으로 소비 증가 폭이 이전 예상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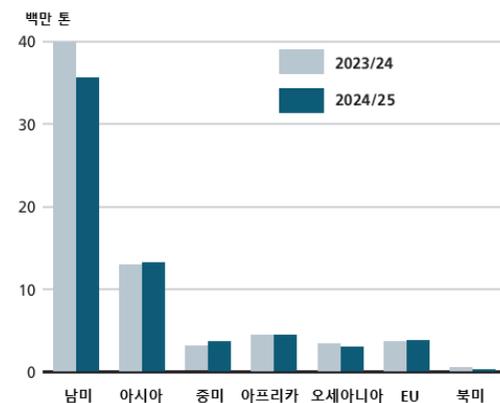
2.6.4. 2024/25년 세계 설탕 교역, 감소 전망

FAO는 2024/25년 세계 설탕 교역량을 6,330만 톤으로 전망하며, 전년 대비 -6.0% 감소할 것으로 본다. 이는 브라질·인도의 수출 가능 물량 축소와 아프리카·아시아의 수요 약

화가 주된 배경이다. 미국의 관세 인상(2025년 5월 중순 시행)은 세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전망이다. 미국의 설탕 수입은 전통적으로 멕시코가 주공급국이며, 연간 수출 한도와 품질 요건을 설정한 양자 협정과 미·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체계 아래 운영되어 신규 관세의 직접 효과는 크지 않다. 또한 미국은 관세율할당(TRQ) 제도로 수입을 관리하며, 호주·브라질·도미니카공화국·필리핀이 큰 쿼터를 보유한다. 쿼터 물량에는 10% 관세가 적용되고, 쿼터 초과 물량에는 고율관세와 기본관세가 적용된다. 다만 호주·브라질은 세계적 수출국이지만 대미 수출 비중이 작아 세계 교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주요 생산·소비국의 동향이 2024/25년 글로벌 교역의 핵심 결정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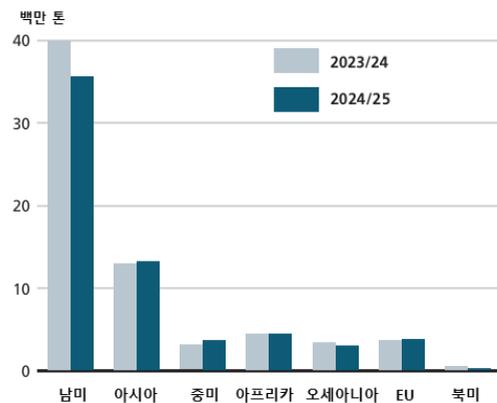
주요 수출국 중에서 브라질은 2024/25년 3,400만 톤(-12.0%)으로, 전년의 기록적 수출에서 감소(생산 감소 반영)가 예상된다. 인도도 생산 감소로 3년 연속으로 수출량이 축소될 전망이다. 전 세계 수입량은 아프리카·아시아의 수요 둔화로 감소할 전망이다. 아시아는 전년 대비 3.5% 감소하며 특히 인도는 2023/24년 360만 톤의 기록적 수입에서 큰 폭 감소가 전망된다. 중국·인도네시아는 소폭 증가하나, 아시아 전체 감소를 상쇄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아프리카는 이집트·케냐·모로코가 국내 생산 증가로 수입을 줄이며 전체 감소를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0〉 지역별 세계 설탕 수출량



자료: FAO(2025), p.33.

〈그림 21〉 지역별 세계 설탕 수입량



자료: FAO(2025), p.33.

2.7. 육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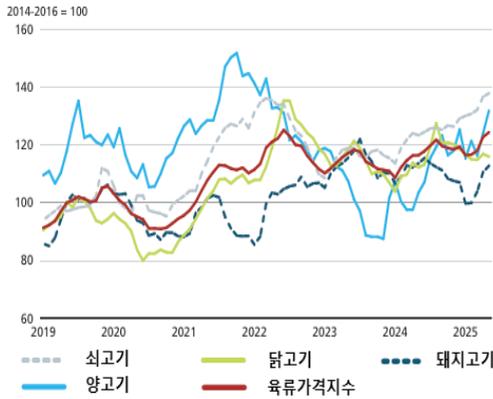
2.7.1. 국제 육류 가격, 견조한 수입 수요에 힘입어 상승세

2025년 5월 FAO 육류가격지수(FMPI)는 124.6포인트로 1월 대비 6.8% 상승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도 6.8% 높은 수치로 양고기(16.4%), 돼지고기(13.6%), 소고기(6.1%) 가격 지수의 상승에서 비롯됐으며, 닭고기 지수는 1월 대비 0.7% 소폭 하락했다. 양고기 가격은 견조한 글로벌 수요와 오세아니아의 제한된 수출 물량에 힘입어 1월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다. 돼지고기 가격은 1월 급락 이후 2월에 안정세를 보였고, 이후 몇 달간 반등했다. 1월의 가격 하락은 독일의 구제역(FMD) 발생으로 EU 내 시세가 하락했고, 여러 수입국이 일시적 수입 중단에 나서 공급 과잉이 빚어진 데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독일의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 일부 무역 제한 해제, 계절적 국내 수요 증가로 가격이 회복됐다. 소고기 국제가격도 공급 부족과 미국의 견조한 수입 수요로 상승했다. 반면 닭고기 가격은 주요 생산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했음에도, 충분한 수출 물량 덕분에 하락했다.

2.7.2. 2025년 세계 육류 생산 증가 전망, 다만 증가 속도는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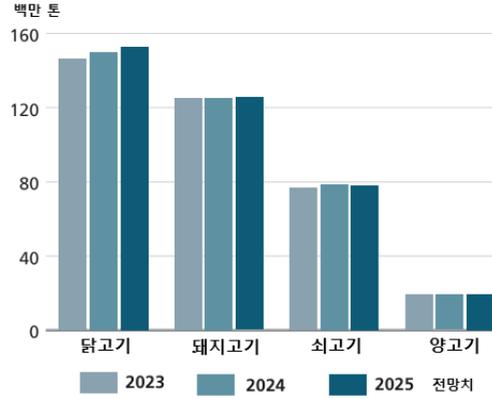
2025년 세계 육류 생산량은 전년 대비 0.6% 증가한 3억 8천만 톤(도체 중량 기준)으로 전망된다. 비교적 안정적인 투입 비용과 견조한 세계 수요에 힘입은 것이다. 품목별로는 닭고기가 확대를 주도하고, 돼지고기와 양고기는 소폭 증가하는 반면 소고기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닭고기 생산량은 가격 경쟁력과 지속적인 소비 수요에 힘입어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HPAI의 여파로 번식계(종계) 공급이 제한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생산이 제약될 수 있다. 돼지고기 생산량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과 수익성 격차로 국가별 증감이 엇갈릴 전망이다. 양고기 생산량은 유럽과 오세아니아의 양 떼 감소와 중국의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중심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소고기 생산량은 최근 몇 년간 높은 가격에 따른 도축 증가로 가축 재고가 줄어들면서 브라질, 중국, EU, 미국 등 주요 생산국에서 생산량이 감소할 전망이다.

〈그림 22〉 FAO 월별 육류 국제가격지수



자료: FAO(2025), p.34.

〈그림 23〉 품목별 세계 육류 생산량



자료: FAO(2025), p.35.

2.7.3. 2025년 세계 육류 교역, 닭고기 수요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

2025년 세계 육류 및 육류제품 교역량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4,300만 톤(도체 중량 기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2024년의 강한 반등에 비하면 증가 속도는 둔화될 전망이다. 닭고기 수출량은 가격 경쟁력에 힘입어 확대될 전망이다. 브라질은 무역 갈등 속에서도 중국과 멕시코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였으나, 5월 중순 상업농장에서 HPAI 발생으로 중국, EU, 멕시코, 남아프리카 등이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돼지고기 교역량은 EU·미국의 수출 감소분을 브라질 등이 메우며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양고기 교역량은 공급 부족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소고기 교역량은 미국의 견조한 수입 수요에 힘입어 완만히 증가가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남미가 대외 판매를 우선시하면서 국내 공급이 다소 제한될 가능성이 있고, 대부분 지역의 수입 수요는 견조할 전망이다. 다만 새로운 무역 제한 조치가 발효될 경우 교역 흐름의 재편이 불가피하다.

2.7.4. 닭고기 생산·교역 전망

2024년 세계 닭고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1억 5,240만 톤으로 전망된다. 사료 가격 안정, 견조한 수요, 다른 육류 대비 가격 경쟁력이 성장 요인이다. 다만 HPAI와 뉴캐슬병 발생, 번식계(종계) 부족은 일부 지역의 성장세를 제한할 수 있다. 2025년에는 브라질, 중국, EU, 미국을 비롯해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러시아, 튀르키예에

서 생산 증가가 예상된다. 2025년 닭고기 교역량은 1.9% 증가한 1,69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중국은 수요 부진과 공급 과잉, 무역 갈등, 질병 관련 수입 제한 등으로 수입이 제한될 수 있다. 한편 브라질, EU, 태국, 튀르키예의 수출은 증가할 전망이다. 브라질의 HPAI 발생은 일부 시장에서 일시적 수출 제한을 초래할 수 있다.

2.7.5. 소고기 생산·교역 전망

2024년 세계 소고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0.6% 감소한 7,800만 톤으로 전망된다. 브라질, 중국, EU, 미국의 생산 감소가 주요 원인이다. 각국이 번식 및 사육 재건을 위해 도축을 줄이는 추세여서, 2025년 공급도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2025년 세계 소고기 교역량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1,320만 톤으로, 2024년보다 증가 속도가 둔화될 전망이다. 미국은 국내 공급 부족으로 수입량이 늘고, 중국도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다만 미·중 무역 갈등과 수입 제한 조치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2.7.6. 돼지고기 생산·교역 전망

2025년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0.1% 증가한 1억 2,520만 톤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EU에서 생산 감소가 예상되지만, 브라질·러시아·미국의 생산 증가가 이를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세계 돼지고기 교역량은 1,020만 톤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미국과 EU, 캐나다의 수출 감소는 브라질의 수출 증가로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2.7.7. 양고기 생산·교역 전망

2025년 세계 양고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0.6% 증가한 1,910만 톤으로 예상된다. 호주, 중국, EU, 뉴질랜드에서 생산량이 감소하지만, 인도·튀르키예·영국의 생산 증가가 일부 상쇄할 전망이다. 2025년 세계 양고기 교역량은 130만 톤으로 안정세가 예상된다. 영국과 미국의 수입 감소는 중국, EU, 말레이시아의 수요 증가가 보완할 것으로 보이며, 호주와 뉴질랜드의 수출은 제한적인 반면 영국의 수출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3. 요약 및 시사점

FAO의 최신 전망은 세계 식량자원 시장이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품목별로는 수급 불균형과 가격 변동성이 여전히 존재함을 시사한다. 설탕·유지류 공급 제약, 유제품과 육류의 가격 상승 압력 등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구조적인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2025/26년도 밀과 옥수수의 생산 여건이 양호하여, 특히 옥수수를 중심으로 공급 여력이 충분한 가운데 주요 곡물 선물가격은 하향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바이오연료 정책 변화로 기름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박류는 공급이 풍부하여 박류 수입 비중 확대를 통해 국내 사료 원가를 완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미국·중국·EU의 정책 및 무역 관련 리스크가 상·하방 요인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첫째, 국제 곡물의 수급 불안정성에 대비해 수입선 다변화 및 해외 곡물기지 투자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쌀의 경우 국제 공급 여력이 확대되더라도 아시아 내 수요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수급 안정과 수출 확대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셋째, 축산업의 가격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사료 자급률 제고와 대체 원료 개발 등 구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가공식품 원재료인 설탕과 유지류의 가격 급등 가능성에 대비해, 식품 산업 전반의 공급망 관리와 가격 안정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다섯째, 유제품 및 육류 가격 상승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선 다변화와 함께 국내 생산 기반 강화 전략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번 FAO 전망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식량 공급망 충격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다. 이에 따라, 단기적 가격 안정 대책을 넘어, 해외 곡물 조달망 확충, 국내 생산 기반 강화, 사료 및 대체 원료 개발, 비축 시스템 고도화, 식품 산업의 원가 안정 장치 마련 등 종합적이고 다층적인 식량안보 전략을 신속하면서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FAO. 2025. *Food Outlook – Biannual report on global food markets*. Food Outlook, June 2025. Rome. <https://doi.org/10.4060/cd5655en>.

OECD/FAO. 2025.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25-2034*, Paris and Rome. <https://doi.org/10.1787/601276cd-en>.

